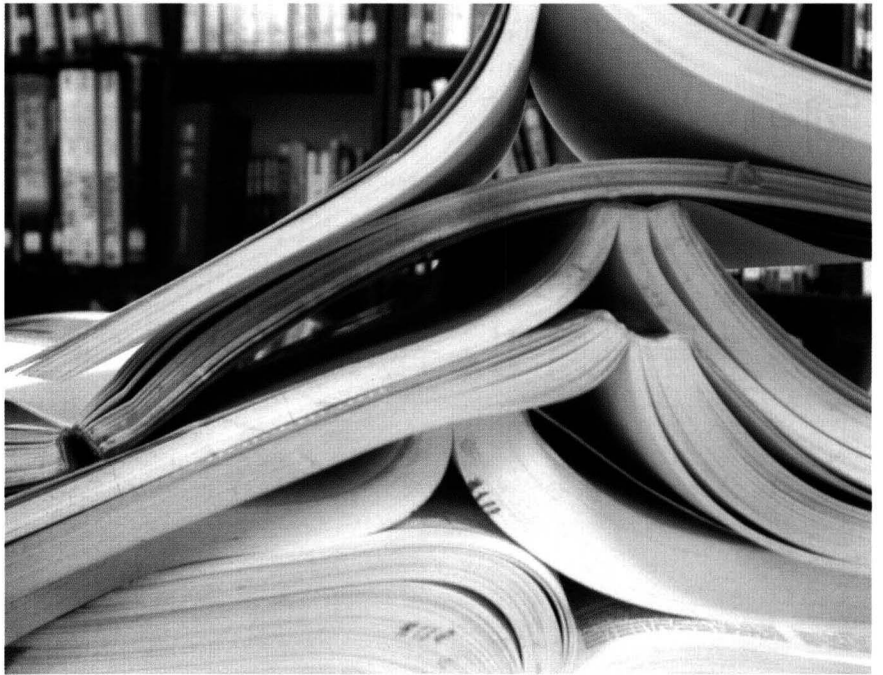


# 책이랑 살자

「책 말고, 웰빙을 말하는가」



●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대체 어떤 걸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21세기 벽두 대한민국의 행복철학은 뉘집 강아지 부르듯 회자되는 '웰빙' 한 단어에 응축돼 있다. 엄숙한 의식을 치르듯 몸과 마음을 쇠락하게 하고 혈류와 대사를 개선하며, 좋은 볼거리에 취하고, 이로운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두루 맞춘다. 허나 '웰빙'도 어설피게 아무나 덤벼들 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다. 생의 로드맵까진 아니더라도 꽤나 구성이 짜인 삶의 일과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웰빙'을 할 수 있다.

-

그래서 말이다. 그런 감냥의 잘 먹고 잘 살고픈 애절함이 있다면, 그 정도 함량의 생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나의 뇌수 또한 웰빙을 즐기게 하면 오죽 좋은가. 러닝머신에 굴러내는 에너지의 조금만이라도 뇌의 고상함을 가꾸는 데 쓴다고 해서 손해보는 장사일까. 한방푼 전 한끼 덜먹는 대신 현학티 내며 폼 한번 잡아보는 게 과연 사치스런 일인가. 스파와 반신욕의 끈적한 쾌감 대신 활자가 주는 '읽'의 기쁨에 전율한다고 해서 어디가 덧날까.

-

아니다. '준#무뇌야' 일지언정 잔머리에 능한 군상들 앞에선 결코 덧날 리 없다. 벽창호일망정 막말과 막된 행투로 세상을 제압하는 모습들에 견줘보면 사치스런 일도, 손해볼 일도 아니다. 쥐오줌만이나 한 대중 폐이퍼의 정보에 기대 한껏 시대를 놓고 큰소리치는 의사擬인텔리겐치아 앞에선 더욱 그렇다. 때문에 <출판저널>은 새삼 말한다. '책 죽이기'의 무심한 행태를

그만 두자고- 그 소리 누군들 못하나며 시큰둥해하는 세태에 대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한다. 아예 '책과 살자'고-

-

시러베 같은 한가한 소리로 치부할지 모른다. 허나가 꿈은 왼쪽 가슴에 손얹고 내 영혼의 건강지수를 물어보자. 처차식 먹여 살리는 데 당장은 보탬 안되고, 육질적 행복에 별 영양가가 있어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미련을 대고 나만의 지적 호사를 책에서 구해보자. 필경 나의 언사에 기름기가 돌고, 심령에 꽃이 피며, 세상을 보는 육안에 해안까지 곁들여지리라. 그건 상종가 주식 마진과 아파트 프리미엄과 두둑한 현금봉투와는 종의 기원을 달리하는 삶의 매력이다.

-

책과 살자. 그럴진대, 참 웰빙의 필요-충분조건은 완성된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생체가 아닐진대 사유도, 성찰도 하고, 물상 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격조가 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럴때 비로소 좋은 음식도, 세련된 라이프스타일도, 쾌적한 일상의 도구들도 그 뜻이 온전해질 것이다. '너희가 웰빙을 아느냐'는 물음에 영육혼이 한꺼번에 '안다'고 자신했 대답할 수도 있을 터이다.